1.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회진보연대 회원모임인 '빵과 장미'입니다.
간략하게 저희 모임을 소개하자면, 연극소모임으로 2003년 1회 정기공연으로 '소시민의 칠거지악'을 공연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상적으로는 함께 세미나와 관극, 퍼포먼스를 하면서 예술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2.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된 것은 '빵과 장미'가 현재 전쟁과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로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3월20일 반전공동행동 때 공연하기 위함인데 그 전에 3.8여성대회때 공연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현재 준비상황은 1차 대본이 논의되었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대본 수정작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략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쟁의 슬픔을 형상화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남녀의 독백으로 상황이 연출되고 '눈물 흘리는 어머니'나 '강간당하는 여성'을 뛰어넘어 여전사의 계보를 형상화하는 퍼포와 노래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대본이 각색중인지라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기는 어렵지만 문화제 논의가 진행되는데로, 그리고 각색이 되는대로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 많은 부분 촛점이 맞춰지기는 하지만 최대한 '페미니즘'에 대한 문제의식을 살려서 가는 것이 기획의도이고, 3월20일도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는 기조로 나아가려 합니다.

3. 문화제 일정과 사정이 있을 것으로 사려되어 무리하게 판단하지 않으셔도 되고 문화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저희로서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메일 보냅니다.

4. 출연이 확정된다면, 3월20일 문화제에서는 출연료를 받을 예정이지만 3월8일 문화제에서는 귀 단체의 상황 하에 알아서 판단해주시고 기본적으로 퍼포먼스에 필요한 물품구비는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저희가 함께 논의했던 글을 첨부합니다. 이 글을 논의했고 이 글을 기본으로 주제를 잡으려 했습니다. (얼마나 잘 형상화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요...)

6. 3월8일 좋은 문화제 만드시고 수고하세요~

7. 연락은 빨리 주실수록 좋겠지요...